

제 26 차 중앙총회

중앙감독회

4 개년 보고

불 타오르는 교회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함이라-딤후 1:6

2002년 6월 8일에 콜로라도에 있는 나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38세의 한 여성이 성냥불을 켜서 떨어져 있는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온 편지를 격분하며 태우고 있었다. 그것은 단 한 개의 성냥개비요, 단 한 장의 편지요, 단 한개의 불꽃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한가닥의 연기가 사라져 그 불이 다 꺼졌다고 생각했을 때, 계곡의 바람이 불꽃을 타고 그것을 부채질하였다. 불길은 퍼져 성난 화재로 변해 그 진로에 있는 모든 것을 걸잡을 수 없이 집어 삼켰다. 소방대와 자원 부대가 수일간 그 화염과 싸웠다.

그 결과는 광범위했고 복잡했으며 오래 계속되었다; 137,000 에이커가 피해를 입었다; 네 카운티에서 133 채의 집을 포함하여 600 개 건물이 무너졌다; 수천명의 주민들이 철수했다; 피해액은 3 천 9 백만불 이상이 되었다; 거의 2 천 4 백만불의 사유재산이 손실되었다; 실직, 부동산 가치 및 세입소득 하락의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가스 및 전기 시스템이 파손되었다; 땅의 침식작용, 수질, 자연 번식지에 영향을 주는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한 개의 성냥, 한 개의 불꽃, 바람에 의해 일어난 한 불길의 상상도 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 성난 괴성의 화염이 되었다. 불의 힘은 놀랍고, 신비롭고, 형언할 수 없다.

요한이 예수님께서 “너희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 (마 3:11) 고 예언했기 때문에 불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해 왔다. 이 예언은 오순절 날에 다락방에 모인 신자들에게 성령의 태우는 불이 임함으로 성취되었다. “갑자기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하늘로서 내려와 저희가 앉은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저희가 불의 혀 같이 갈라져 저희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고 저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되었다” (행 2:2-4)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는 탄생되었다! 그것은 겨우 120 명 사람들로 작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작은 그룹은 성령의 불길로 우주의 부패하고 타락하여 부패한 세상에 군대세력을 갖고 행진해 들어가 수많은 회심자를 내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면서 그 세상의 도덕적 및 영적상태를 영원히 변화시켰다. 교회가 어떤 세대 혹은 어떤 상황에서나 성령의 강력한 불로 타오르면 세상에 하나님의 선교는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불은 뜨겁게 한다! 불은 밝게 한다. 불은 정결케 한다! 불은 다른 어떤 것을 불 붙일 수 있는 힘이 있다! 불은 태우고, 소멸하고, 파괴시킨다! 불은 성격상 불을 점화하여 오래 꾸준한 이글거리는 불이 된다.

불의 자연적 경향성은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성령의 불도

교회내에서 맴돌다가 식어질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경고했다: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함이라” (딤후 1:6). 지난 2천년동안 성령의 입김은 가끔 교회내에서 영적 불을 점화시켰다. 나사렛교회는 이 진리의 예증이다. 감리교회는 요한 웨슬레의 마음이 1738년에 성령에 의해 “이상하게 뜨거워졌을” 때에 불이 점화되었다. 성서의 성결교리에 새롭게 강조를 두고 감리교회는 마치 걸잡을 수 없이 대 불길처럼 영국 전역에 퍼졌다. 그것은 결국 성결의 메시지를 위해 비옥한 땅으로 입증된 미국 땅에 도착했다. 19세기 중반에서 후반에 부흥운동에 의해 열이 가해진 기독교 성경교리는 교단의 장벽을 뛰어 넘기까지 하면서 미국 전역을 화재 폭풍처럼 휩쓸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교리에 대한 반항이 일어났고 하나님 백성들 속에 열정의 불을 부쳐 “성경적 성결을 펼쳤다” 성결 전파의 조그만 불이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미국 전역에 타올랐다. 궁극적으로 나라 전역을 휩쓴 이 불길은 1908년에 텍사스 파일롯 포인트에 밀려 들었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 나사렛교회가 존재하게 되었으니 곧 성경적 성결교리에 특별 강조를 두었다.

나사렛교회의 제2차 중앙총회에서 이 에이 걸빈은 어린 교회의 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바로 시작부터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었고, 그는 우리로 하여금 성결의 불의 켄터들을 설립할 수 있게 했다”. 이 “성결의 불의 켄터들”의 다음에 성결의 메시지에 대한 깊은 확신과 불같은 열정이 있었다. 그 메시지가 그들의 사명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메시지에 대해 열정이 성결운동의 결과를 가져온 대 화재가 된 불을 점화했다. 그 초기 나사렛인들은 새 교회들을

세우고 구호사역을 하고 교육기관들을 세우기 위해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들을 했지만 그것들은 2차적인 것이고, “성경적 성결을 전파하는” 그들의 근본적인 열정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이것은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을 위한 추진력이었다.

그들이 전파한 메시지는 우리의 장정상의 신조에 분명히 선언되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거의 100년동안 변치않고 그대로 있다. 다른 복음주의자들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모든 범죄의 완전한 용서와 이 범죄의 형벌에서 완전한 해방과 의로 받아 들여짐”이 있음을 믿는다.

우리는 완전성결을 “중생 이후의 하나님의 행위로서 한 체험으로 모든 죄로부터의 마음의 깨끗이 씻음과 성령의 살아 내주하심과 신자들의 삶과 봉사에 능력을 부여한다”고 봄으로써 다른 신학 전통과는 월등히 다르다. 이 체험은 항상 거룩한 삶의 본질적인 것이지만 결코 인간이 영적 여정의 종착점으로 봐오지 않았다. 그것은 주가 되신 예수와 가깝게 사랑의 관계를 갖고 살면서 점차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성품에 있어 성숙해 나가는데 무한한 은혜의 가능성에 문을 열어 놓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삶의 완전은 개교회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곳에서는 모두가 사랑 안에서 책임이 있고 교회는 근본적으로 세계 가치관과 그 둘러싼 문화의 관례를 도전하는 크리스찬 삶의 스타일의 모델이 되고 있다. 그러한 교회 선포와 그러한 자유케하는 메시지는 정말로 “거룩한 불의 켄터”라 불리워질 것이다. 그러한 교회는 소망의 타오르는 불인데, 우리의 세상이 얼마나 절실히 소망을 필요로 하는가!

소망으로 불 타오르는 교회

최근에 일어난 자연재난들 곧 수나마, 태풍, 토네이도, 홍수, 화재는 생명 피해, 부동산 파멸, 수 많은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의 불안정에 있어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케 해 왔다. 그 다음 인간이 만들어낸 갈등, 잔인행위, 믿을 수 없는 비인간성과 부정들이 있는데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것들이다. 여러 문화에서 인간 생명이 너무 하찮다. 콩고 민주공화국에 있는 우리의 형제 다미니안 루마지미시 목회자는 그의 소를 훔친 다음 소의 대가를 지불하기 보다는 온 가족을 죽이려고 시도한 사람에 의해 그의 아내와 두 자녀, 그리고 그의 집에 있었던 사랑하는 친구가 살해된 것을 겪었다. 한 마리의 소가 네 인간 생명보다 더 중요하였다. 그 다음 에이치 아이비 에이즈 질병과 가난, 고아들, 악용, 기아, 대량학살, 전쟁 그리고 죽음등이 있다. 수 많은 사람들이 무력하게 마약, 알코홀, 음화, 쾌락주의, 그리고 물질주의에 중독되어 있다. 이 장황한 이야기는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21 세기 세상은 절망의 술에 필필 끓고 있다. 사람들은 완전히 절망의 바다 위에서 비참하게 헐떡거리고 있다. 예수의 교회의 때가 아닌가!

작년 가을에 멕시코 톨루카에서 예수 영화팀이 예수 그리스도안에 소망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 온 이 복음전도 도구를 다시 상영하려고 준비를 시작했다. 그날 아침 폭우가 쏟아졌는데 비록 비바람이 잠잠해졌을 지라도 거리는 아직도 물로 적셔 있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했다. 그들의 계획을 변경하여 주요 고속도로 근처에 있는 농구장에서 대신 영화를 상영하는 불편을 겪었다. 복잡과 불편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비를 보내는 분은 또한 불을 보낸다. 그 고속도로 위의 다리의 벼랑에

한 50 세된 한 남자가 소망을 잃고 생의 상황에 절망한 나머지 서 있었다. 그는 그 날 밤 모든 것을 그곳에 가서 끝장내고 뛰어내려 죽을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리에 서서 막 영원으로 들어 가려는 차에 그는 그 영화 화면에서 소망의 대표이신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는 그의 마음에 있는 고뇌를 예수의 사랑이 대신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상담자 중의 한 사람앞에서 그는 진지하게 “나는 예수에 대해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제발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간청했다. 그날 밤에 그는 그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지금의 생과 오는 생을 지속케 할 수 있는 소망을 받았다.

우리는 세상의 냉혹과 절망의 혼란이 아주 절실히 필요로하는 메시지를 갖고 있으니 곧 소망되신 예수이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뿌려 나가고 있다. 오늘날 254 예수 영화 팀이 98 개의 세계 지역에서 155 개의 언어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6 년간의 결과는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 4,795,308 명이 그리스도를 위해 결단했고 그들중 1,827,699 명이 첫 제자 육성에 참여했으며, 12,665 명의 새 목회자들이 훈련 받고, 5,952 개의 개척 교회가 시작되었다. “나의 가장 좋은 친구”라는 구원책자가 우리의 주일학교국에 의해 만들어져 지금 북 유럽의 예수 영화 파트너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소망되신 예수는 모든 세대에게 주는 우리의 메시지이다.

1907 년 첫 중앙총회에 때 그의 보고에서 피니스 브리스는 새로 합친 교회에게 본거지를 튼튼하게 한 다음에 세계 전역에 빛을 발산하라고 명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이 나라에 거룩한 불길의 많은 썬터들을 두고 그것들에게서 시내가 흘러 나와 세계로 흐르는 데는 몇년이 필요할 것이라고 믿는다” 라고 진술했다.

오늘 날 수 많은 거룩한 불길의 썬터들이 149 개 세계 지역에서 나사렛교회를 통해 밝게 타고 있다. 우리 개교회의 설교단, 주일학교 클래스, 소 그룹들로 부터 소망되신 예수가 모든 문화의 사람들에게 주는 우리의 멧세지이다. 이 개교회들의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은 그들의 충성되고 열매 맺는 섬김에 대해 칭찬받아야 한다. 2004 년 통계년도 말에 우리는 지난 4 년간의 보고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었다.

13,672 교회 (8.7% 증가)

1,496,296 회원(7.7% 증가)

그 외 445,607 명의 새 나사렛인들이 회원으로 받아 들여졌는데 그 어떤 4 년기간보다 가장 많은 수의 새 나사렛인들이다.

2001-2005 년 4 년간의 우리의 주제는 우리의 시대에 날카롭게 관련된다고 믿으면서 중앙감독회는 오는 4 년동안에도 같은 주제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소망되신... 예수” 이다. 우리는 그것이 가끔 언급되는 표어나 슬로건 이상이 되기를 기도한다. 우리가 우리의 핵심적 가치관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이다”고 진술할 때, 우리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6) 고 말씀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명백히 진술한 그 창시 크리스찬들의 확신을 포착하고 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행 4:12). 우리 나사렛인들이 다시 불일듯 해야 한다. 오늘 소망되신 예수. 절실한 시대에 소망되신... 예수. 영생을 위해 소망되신... 예수. 세계의 소망되신 예수.

선교 열정으로 불 타오르는 교회

나사렛 교회는 거의 100 살이다. 우리가 세계 가족으로 중앙총회의 분위기로 다시 모이기 전에 우리는 100 주년 기념 축제를 가질 것이다. 1946 년에 연회 감독들에게 한 주목할만한 그의 보고에서 “모두가 영혼을 위해 나가자”는 잃어버린 자를 위한 교회 열정을 다시 불 태우는 보고로서 제이비 켈맨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형제들이여, 나는 불 가운데서 태어났으니, 나는 연기를 참을 수 없습니다. 나는 광명한 낮의 자녀이니, 연무, 안개, 깔린 어둠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켈맨 박사가 지적한 것 처럼 교회가 부흥의 불 속에서 탄생했으니 잃어지고 상한 존재 이유에 관한 불확신에 대해 무감각한 연기에 질식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사실이다. 그러나 새로 붙여진 불꽃은 하나님을 위해 불일듯 한 것도 역시 사실인데 그것은 영적 회심뿐 아니고 통계 성장에서 보여 준다. 나사렛교회는 세계 전역으로 움직여지고 있다. 이것은 1,000 명 장벽을 무너뜨린 미국교회에서 보다 더 분명한 곳은 없다. 17 년전에 케이 교회 프로젝트가 그들의 회중이 출석 1,000 명에 이르게 하는데 목회자들을 돕기 위한 노력으로 시작되었다. 그 때 겨우 미국에서 9 개 교회만 평균 1000 명 이상 모였다. 이 4 년간 1,000 명 이상의 그룹을 이룬 교회들은 33 개로 성장했다. 그로브시, 오하이오 교회; 덴버, 콜로라도 제일교회; 캔사스 칼리지 교회와 같은 교회들 명단에 요크, 펜실바니아 스틸메도우 교회; 플린트 미시간 쉐추럴 교회; 레이클랜드, 플로리다 하일랜즈팍 교회; 캔들러, 아리조나 크로스로드 교회; 그리고 다른 많은 교회들이 더 해졌다.

세계 선교지역에서 1,000 명 이상의 나사렛교회는 19 개가 있고, 세계 전역에 모든 규모의 교회들이 잃은 자에게 이르는데 계속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나사렛교회가 2001-2005 년 4 회기년간 기록을 깬 자료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잃은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열정으로 불일듯하고 있다.

- 세계 전도자금은 270,357,175 불로 이전의 모든 기록을 깬데, 세계 전도자금 초과지불 5 백만불은 새 선교지역을 물색하고 그곳에 들어가는데 쓰여 졌다. 나사렛교회 재단이 창설되어 기금인들을 위한 혁신적인 기부방법을 제공했는데 첫 해의 반응은 모든 기대를 능가했다.
- 801 명의 선교사들과 자원인들이 14 개의 새 지역에 들어간 것을 포함하여 149 개의 세계 지역에서 일 해 왔다.
- 57 개 나사렛 일반대학, 종합대학, 신학교들이 세계의 장래 지도자들을 훈련시켰다.
- 나사렛출판사는 계속 성결 자료의 제일가는 출판사로 순판매 9 천 7 백만불을 초과했다.
- 우리의 주일학교는 세계적으로 평균 769,396 명이 출석했다.
- 나사렛청년회 회원은 세계 전역에 36,950 명으로 성장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기록에 기뻐하지만 통계 성공은 우리가 노력 전진하는 것의 끝이 아니라 하나의 지표이다.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응답하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마 28:19)이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사명은 “열국에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을 삼는 일”이다. 이 목적을 위해 나사렛인들의 관대한

헌금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우리의 세계 선교, 전도, 교육, 구호, 출판사역을 세계에 확장하게 하고 있다.

중앙감독회는 국제본부의 아주 소중하고 재능있는 세계선교팀의 팀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그 팀은 다음과 같다:

잭 스톤	중앙총무/본부 운영위원장
메릴린 맥클	중앙재무/본부 재정위원장
루이 버슬	세계선교국장
데이비스 그레이브스	주일학교장
탐 니스	미국/캐나다 선교 전도국장
제리 램버트	교육위원장
데이비드 펠터	중앙편집인
니나 건터	나사렛 국제선교회 국장
게리 하키	나사렛 국제 청년회 국장
하디 웨더스	나사렛출판사 사장

이분들은 교단을 위해 지도력을 제공하는데 중앙감독회와 협력하여 일하는 운영인들이다. 그들 사역의 특별분야들에서 행한 전반적 활동들을 포함한 그들의 보고는 중앙총회 대의원 노트북의 “4 개년 보고”라는 표 아래 포함되었다.

위원회들과 다수의 상의인들에 의한 수년에 걸친 연구 분석후 2005년 중앙위원회는 압도적으로 현재의 낡은 빌딩을 구조 변경하기 보다는 새 국제본부를 지을 것을 승인하였다. 연구한 것은 15년 기간동안에 우리의 7개의 현존 건물의 관리, 건물 검사 합격, 구조변경 도전들에 직면하는 것 보다 새로 짓는 것이 경비가 덜 들것을 보여

주었다. 그것은 청지기적 결정이었다. 그 외에 중앙위원회는 새 위치에 건물을 세울 것을 결정했다.

우리의 세계 필요를 보다 잘 섬기기위해 우리의 265 명의 고용인들을 새 건물에 유치할 때가 되었다. 우리는 캔사스시 지역에 남아 있으면서 그렇게 할 것이다. 첫 설계는 3 층 건물에, 110,000 평방피트의 행정 사무소 빌딩으로 캔사스 레넥사의 흰히 띄여 있는 95 번가와 I-435 가 만나는 지점에 걸출하게 위치하여 시가 전 지역을 빨리 접할 수 있다. 자금 거출, 파세오 건물 처분방법들, 그리고 다른 전략단계들이 잘 진행중이다.

인간 역사와 나사렛교회의 이 중대한 순간에 중앙감독회는 전략적이며 앞을 내다보는 지도력의 중대성을 인정한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감독회는 세계선교팀과 함께 교회에 당면한 아주 중대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전략들을 알아내고 조사하고 제안하는데 도울 사고 파트너 그룹을 임명했다. 미국 남서부지구 연회감독들의 요청에 대한 반응으로 한 중앙감독이 새 4 개년의 마지막 2 년동안 이 지구의 모든 연회들을 섬기는 일을 맡을 것이다. 이것은 실험으로만 시행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것의 선교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될 것이다.

중앙감독회는 선교 성취에 불 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추구하면서 세가지 사역을 정해 우선권을 두었다.

1. 우리는 구호사역 전도를 해야 한다.
2.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을 삼아야 한다.
3. 우리는 새 교회들을 시작해야 한다.

구호전도를 하라

우리는 구호와 전도의 행위들이 의미에 있어서는 다름을 인정하지만 둘 다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된 마음에서 흘러 나온다. 우리는 신속한 전도목적을 위해 구호사역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연민을 갖고 행한다. 그는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행 10:38) 그리고 나사렛인들은 그의 본을 따르고 있다.

과거 4년간 나사렛 국제선교회를 통해 우리는 절실히 필요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124,000 개 이상의 위기 구호품을 보급했다; 5621 명의 나사렛인들이 구호사역 아동후원 프로그램을 통해 69 개 나라에 60,000 명의 가난한 아동들을 위해 식사, 돌봄, 교육을 제공했다; 최근 몇개월간 우리의 많은 사람이 스리랑카, 인도, 인도네시아, 타일랜드, 그리고 아프리카 북동부에 직접 참여하여 손수 수고한 것과 더불어 2 백 6 십만불 이상의 기금이 수나미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달되었다. 이것들은 세상의 절실히 필요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 표현한 몇가지에 불과하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구호의 행위는 가끔 전도의 문을 열어 놓는다. 선교에 불 타오르는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꺼운 자기희생으로 그 자체를 나타낼때, 그것은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굳은 마음의 이방인들로 하여금 정오의 해 아래있는 얼음처럼 녹기 시작한다. 구호의 돌봄은 거의 항상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할 때 이기게 한다. 그리하여 구호와 전도는 세상의 잃어지고 상한 자들을 우리가 껴안는 일에 협력한다.

브리스 박사는 “그 [성령]가 개개인의 영혼에 임한다. 그는 모든 신자를 ... 타오르는 불로 만든다.” 라고 말했다. 불은 불을 낳는다!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의 멧세지로 불을 붙일 수 있다. 단 한 생명의 성냥이 공동체, 도시, 국가 그리고 세상까지도 휩쓸 삼키는 큰 불의 점화점이 될 수 있다. 우리 주님의 정신으로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자를 자유케 함을... 전파한다”(눅 4:18). 우리는 어떤 특별한 방법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기꺼이 “내 [우리]가 여러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 (고전 9:22)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삼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명백하다. 그는 “가서 회심자를 만들라”고 말하지 않았다. 분명히 회개는 우리의 선교의 중대한 면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목적지로 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가서 제자 삼으라”(마 28:19)는 것이다. 제자 육성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데 본질적이다. 교회내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길러낸다는 것은 우리의 웨슬레 신학의 절대 필요한 요소이다.

주일학교국은 모든 연령수준에 있어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을 길러 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주일학교의 특질의 일부는 소그룹을 강조하는데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은 다른 돌보는 사람들과의 의미있는 유대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안에서 자라고 함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데 헌신한다. 교사의 근본 책임은 듣는자들을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로 만들 수 있도록 그들의 삶속에 의미심장한 변화가 있게 하는 것이다.

나사렛출판사는 워드액션 커리큘럼과 비콘출판부를 통해 제자훈련 자료들을 공급한다. 이것들은 웨슬레 관점에서 디자인된 나사렛

자료들이다. 중앙감독회는 모든 나사렛교회가 워드액션 커리큘럼을 포함하여 우리 자신이 나사렛이 출판한 자료들을 사용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그것들은 뛰어나며 신학적 정확성을 위해 검토할 필요도 없다.

우리의 제자육성 과정은 또한 지도자 개발에 초점을 신중히 두어야 한다. 교회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의 성공은 지도자에 따라 올라가거나 내려 간다. 우리는 교회 모든 수준의 지도자들을 필요로 하는데 개교회 목회자보다 더 중요한 지도자는 없다. 우리는 세계 전역의 우리의 목회자들을 위한 교육과 자료공급에 헌신한다. 안수를 위한 학과과정의 신학교 교육의 단기 커리큘럼이 곧 시행될 것인데, 성직자 훈련의 질을 조정하고 표준화 할 것이다. 국제 교육위원회는 21 세기의 세계 교육전략 곧 지상명령 목회자 양성을 계속할 것이다. 나사렛 국제선교회의 기념 프로젝트인 “목회자를 위한 서적들-사역을 위한 도구”는 그들의 언어로 된 신학 및 전문 기술의 자료들을 수천의 목회자들에게 공급할 것이다.

우리의 지도자 양성은 21 세기의 무대에 쏟아져 나온 청년의 새 세대를 포함한다. 이 과거 4 년 동안에 나사렛청년회는 에콰도르 키토에서 세계에 등장하는 지도자 대회인 제 3 파도를 주최했는데, 44 개 나라에서 29-44 세 연령이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세계 전역의 지구 나사렛청년회 대회들에 참석한 수많은 청년들은 제자 육성 및 지도자 양성 훈련을 받았다. “맨발 사역”은 나사렛청년회와 나사렛출판사가 파트너가 되어 청년 사역의 자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새 세대 연결”은 아동 및 청년들을 위한 범교단적 10 개년 강조로서 세계 모든 지구들의 세계 특별과제와 대등하게 되었다.

중앙감독회는 새 지도자들을 길러내는데 헌신한다. 교회의 변화하는 면모는 모든 문화, 모든 인종, 모든 색깔, 남성 여성이 중앙

교회지도자들을 포함하여 지도자들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이 불타는 문제를 다루는데 국제적이어야 한다. 우리 세계 교회의 모든 수준의 지도자들은 교회와 같이 보여져야 한다. 중앙감독회는 모든 중앙총회 대의원들에게 투표할 때에 교회의 모든 수준에 다양성이 필요함을 기도라며 고려할 것을 강권한다.

새 교회를 시작하라

기독교가 취한 단 하나의 가장 효과적인 전도 형태는 새교회를 시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역사적이다. 중앙감독회는 이것이 선교 성취에 본질적임을 믿으면서 교회개척을 우리의 세 사역 우선중 하나로 두었다. 우리는 새 교회들을 시작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 과거 4년동안 미국/캐나다에 460 개의 새 교회가 설립되었다. 이들 중 거의 50%가 문화 및 언어상 소수 민족사이에서 일어난다. 6 개의 세계 지구 들에서 1,374 개의 새 교회가 설립되었는데 18.9% 증가이다. 이제 우리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새 비전을 포착하고 있는데 새 4 개년에는 지수 함수의 교회 개척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스도 형상으로 불 타오르는 교회

우리의 핵심적 가치관의 중심에 우리는 담대히 “우리는 성결인이다”라고 진술한다. 우리의 장정 서두에 “나사렛 교회의 근본 목적은 성경에 밝힌대로 그리스도인 성결을 보존하고 전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라고 진술되어 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자치로 기울어지게 하는 죄된 상태로부터 신자들을 깨끗케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믿는다. 그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갱신하고 우리의 온 마음과 영과 혼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하고 우리 안에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어 놓으시기를 원하신다. 신자들의 생활가운데서 성결은 그리스도를 닮은 것으로 가장 명확히 이해되어 진다.

우리 나사렛인들이 우리 자신들을 “성결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고상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주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수직 및 수평의 측면 곧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 의해 정당화 되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보이는 표현은 예수께서 살아 계시는 동안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한 모든 것”(행 1:1)을 계속 행하는 것이다. 우리의 성결의 증명은 “그리스도의 마음”(빌 2:5)을 품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는 것이다.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보는 것 만큼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은 없다. 이 나라에서 시행한 많은 투표와 설문조사는 일반적으로 복음주의 크리스찬과 세계의 삶의 스타일에서 거의 차이가 없음을 입증해 준다. 조지 바나는 “예수의 현대 제자들이 예수처럼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20 세기 중반 이후 미국 기독교는 거의 실패해 왔다:고 결론 지었다. 얼마나 맞는 고발인가! 그런데 나는 그것이 미국에만 독특하게 일어났다고 보지 않는다.

세계 나사렛 가족의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는 보다 의도적인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크리스찬에 대한 세계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예수 곧 그의 사랑, 정결, 의, 정의, 긍휼, 겸손, 종된 마음을 보라. 나는 예수를 닮기를 원한다. 당신은 그렇지 아니한가? 그리스도를 닮은 생활하기를 원하는 나사렛인들을 위한 매일의 공식이 여기 있으니, 곧 예수님 예배, 예수님 사랑, 예수님 생각, 예수님과 대화, 예수님같이 사는 것이다. 그의 나라의 가치관에 의해 인도함 받도록 하자. 그는 부자들에게

그들의 부를 가난한 자들과 나누라고 도전했다. 그는 사회가 박대한 버림받는 자들을 껴안았다. 그는 문둥병자를 만지셨고, 불능자를 고치셨고, 여자들에게 존경의 자리를 배려했다. 그는 모든 형태의 부정을 반격했다. 그는 너무나 혁명적이어서 그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까지 명령하셨다. 우리 나사렛인들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역시 그 초대 크리스찬들처럼 “천하를 어지럽게 할” 수 있다. (행 17:6)

힌두교 지도자는 최근에 예수님의 이름을 선한 일을 하는데 관여하는 월드비전 곧 기독교 인본주의 조직체가 있는 한 사회단체의 마을 우두머리들과 만났다. 힌두교 지도자는 그들에게 월드비전 직원들이 그들을 크리스찬으로 만들려고 힘쓰는 것 때문에 경고했다. 그 사람들은 대답하기를 “당신이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당신도 역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할 것이오”라고 했다. 증거는 삶에 있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말로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일 3:18). 우리 각자는 우리가 사는 방법으로 부활하신 예수의 행하고 사는 증거가 되어야 한다. 지금은 우리가 성결인으로 부름받은 것을 재다짐하고,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예수의 삶의 스타일로 사는데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해야 할 때이다.

백년 축제

우리는 2008 년에 나사렛교회의 백년 축제를 기대한다. 불 타오르는 교회의 가장 알맞는 축제는 온 힘이 미치는데까지 그것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다. 목표가 세워졌다. 이 목표들은 인간 표준한도내에서 포부에 찬 이룰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충성된 청지기 정신이 성령의 부흥의 점화와 결합됨으로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지고도 능가하는 새로운 영적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2009년까지 성취할 선교에 들어갔다:

- 백만명의 새 나사렛인들
- 이백만명의 회원
- 이백만명의 주일 예배 출석
- 백만명의 주일학교 출석
- 18,000 교회

“백주년 교과서 착수”가 나사렛출판사의 비콘 힐 출판부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몇개의 새로 출판된 교과서로 성결교육의 백주년을 기념한다. 이 다섯가지 책은 발간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구약 발견, 신약 발견, 종교 철학, 성결 신학의 한 세기, 웨슬레방법의 성경독서.

중앙감독회는 우리의 세계 나사렛가족이 행사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정식으로 백주년 축제는 2008년 10월 5일에 149개국 모든 나라의 개교회들에서 가질 것을 공고한다. 넓은 교회빌딩에서든지 혹은 그늘진 나무아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성소에서든지 24 포준시간대의 모든 지구 교회들은 우리의 성결의 유업에 대한 기념 축제를 올릴 것이다. 다양한 문화와 예배 스타일로 예배의 일치성을 이룰 수 있는 광범한 자료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무료로 모든 교회들에 보급될 것이다. 나사렛인들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을 통해 100년동안 성령이 성취해 놓은 것에 대한 큰 축제가 될 것이다.

결론

금년 1 월에 나는 모잠비크 마푸토에 서 있었다. 내 앞에는 복음의 몇 교역자들이 안수받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특별히 나의 주목을 끌었다. 그는 그의 바지 한 가랭이를 그의 혁띠속에 집어 넣고 단정하게 복장을 하였다. 그의 오른 다리가 있었던 곳을 그는 자신의 지팡이로 지탱하고 있었다.

20 세 이후에 크리스찬이 된 이바리스토 브란퀴노 목사는 모잠비크 국내 전쟁시 군대 복무 중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 복음주의 교회에서 평신도 목회자로 시작하면서 그는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은 영광스런 구원을 받았다. 근처 강에서 그는 신자들을 세례주어 기쁨으로 그들의 새 생명을 기념했다. 회중들이 다시 그들의 교회로 돌아올 때 이바리스토는 맨 뒤에 오는데 극렬한 하얀 불꽃을 튀기면서 폭발하는 것으로 인해 결국 국내 전쟁의 남은 지뢰에 바로 무릎위까지 그의 다리를 잃은 것을 기억한다.

고통이나 신체 장애의 정도가 하나님을 향한 이바리스토의 열정을 제지할 수 없었다. 그들의 인생의 모든 소유를 한 상자와 세개의 플라스틱 쇼핑 가방에 넣어가지고 이바리스토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세 자녀들은 모잠비크에 있는 나사렛신학교에 도착했다. 그는 거리상에서의 대화를 귓결에 들음으로 나사렛교회를 발견하였다. 7 학년의 교육으로 겪는 어떤 정도의 고충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결을 더 더욱 굽주려함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능력에 대해 이바리스토를 절망시킬 수 없었다.

이바리스토는 이렇게 말했다: “어느 날 클래스에서 우리는 죄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었을 때 내 심장의 맥박은 빨리 뛰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그 문제를 다루어야 함을 알았다.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가까이 나아옴을 보았고 그는 그날 나를 변화시켰다”. 마가리다 랭카 교수의 바로 그 성결교리 클래스에서 이바리스토는 그의 삶의 주관을 그리스도에게 맡겼고 깨끗이 씻음과 성령충만의 체험을 하였으며 완전히 성결되었다. 그는 말하기를 “그때부터 나의 설교는 달라졌고 성령의 권능의 축복을 받아 왔다” 고 했다.

이바리스토가 1996 년에 나사렛교회에 들어 왔을 때, 연회감독인 마짐바와 선교사인 빌립 트라우트맨은 이 평신도 목회자가 이미 교회개혁자임을 발견했다. 그는 그와 함께 하나가 아닌 8 개의 복음주의 교회를 데리고 들어 왔다. 그는 그 신학교 교실에서 그가 체험한 완전구원의 자유케하는 메시지를 그들과 함께 나누었다. 그들 역시 마음의 성결의 체험을 했고 나사렛인들이 되기를 원했다.

한 나무 꼭대기에서 다른 나무 꼭대기로 퍼지고 도랑을 뛰어 넘고, 방화벽으로도 억제할 수 없는 산림 불의 혀 같이 이바리스토의 사역은 다른 지역 에 , 또 다른 지역에, 그 다음 또 다른 지역에 이르렀다. 안수 받기 위해 1 월에 내 앞 에 서 있던 목회자는 7 년 교육밖에 안 받은 평신도 목회자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성결 설교자가 되었으며 세계의 나사렛교회를 더 조직하였다. 열정의 불이 그분안에서 억제할 수 없게 타 올랐고 다시금 세계의 전과 장소가 더 재빨리 뒤를 이었는데 곧 12,13,14 번째 교회이다. 이바리스토는 이 14 개 교회를 섬기는 유일한 안수 목사이다. 그는 지금 11 명의 평신도 목회자들을 멘토하고 있는데 그들 대부분이 나사렛성서학원의 증서를 받는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다.

14 교회회중이 충분하였는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잃은 자와 상한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으로 불타고 하나님과 그의 거룩에 대한 열정으로 살아 있는 자에게는 충분치가 않았다. 내가 1 월에 이바리스트 브랜퀴노 목사를 안수한 후 그는 새 전파장소를 시작했는데 15 번째 교회이다. 첫 예배를 2 월 13 일에 드렸는데 그들은 이미 30 명의 신자들을 두고 있다.

성령으로 불타오른 한 사람. 그 결과는 11 명의 평신도 목회자와 15 개의 교회이다. 성결운동의 첫 표증은 아마 모잠비크에서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한 사람으로 시작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이바리스트 브랜퀴노를 찾고 계신다. “여호와와 그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라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역대하 16:9). 위대한 운동은 항상 겨우 몇 사람으로 시작된다. 한 사람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한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신자 한 가족이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한 교회가 다른 교회를 개척할 수 있고, 그럼으로 지수 함수의 증가를 할 수 있는 모델을 창출한다. 그리고 운동은 시작된다!

한 성냥개비, 한 작은 불, 질풍의 바람 그리고 며칠내에
137,000 에이커의 땅을 삼키는 격노한 대화재로 변한다.

한 교회-

백 5 십만명의 회원을 둔 한 작은 교회-

온전히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문화를 초월한 생의 스타일에 헌신한 한 작은 교회-

오순절 날에 120 명의 신자들을 휩쓴 같은 성령의

격렬한 바람에 의해 불 타오르는 한 교회-

한 교회.

그렇다, 나사렛교회는 세계의 영향력을 미칠 도덕적 및 영적 큰 불을 창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성령의 불의 신선하게 체험하고 “성경적 성결을 퍼트리는데” 강력한 운동을 일으킬 수 있다. 교회, 우리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일듯하게 하자”

제출자

중앙감독교회

제임스 딜

폴 커닝햄

제리 포터

짐 반드

탈마지 존슨

제시 미덴도프

작성 및 발표, 짐 반드

